

중년남자의 수다

여러분 주변에 50 대나 60 대 남자들이 모여 있다면 그들의 수다를 가만히 관찰해보라. 한국에 사는 남자들은 그래도 남자들끼리 모이는 장소도 많고 모임의 성격도 다양하다. 직장, 대학교, 군대, 초,중,고등학교 동창, 고향 친구, 선후배, 종교, 취미별, 인터넷 동호회등 각양각색이다. 흔한 말로 마음만 먹으면 못만들 건수가 없다. 하지만 이민의 중년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수다를 떨 곳이 없다. 대부분이 부부 동반이며, 교회모임 아니면 한두개의 친목모임이다. 그런데 이민 수다의 주도권은 아줌마가 아니라 아저씨다. 집사가 아니라 장로다. 젊은이가 아니라 늙은이다. 본인의 이야기 끼리는 '왕년에'로 시작하여 1 시간 끼리도 되지 못한다. 그것조차 주변사람들은 죄다 외울 정도다.그러니 대부분의 수다끼리 대상은 교회나 주변 사람들 이야기다. 결국 남의 이야기다.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칭찬이나 좋은점을 이야기하겠는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험담으로 날밤을 샌다. 젊은 나이에 는 나라라도 구할 기백이었는데 어찌다 이렇게까지 무너진 것일까. 놀랄 '노'자다. 했던 말을 또 하고, 말을 시작하면 끝내지를 않는다. 남에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 체통도 염치도 접어둔지 오래다. 이 나이에 왜들 이러는걸까?

중년의 남자들은 이야기가 배고픈 것이다. 누군가를 붙잡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하는 것이다. 아무도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다.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는 거세당했거나 은퇴할 나이고, 자식들은 이미 성장하여 아버지의 충고나 조언을 거부한다. 이미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은 물건너 간 동화다. 아내는 불보듯 뻔한, 별 볼일 없는 남편의 수다니까 무반응, 무관심이다. 중년남자들은 외롭다. 혼자 내버려두면 혼자서라도 중얼거린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기러기 아빠들의 독백증상이다. 이러한 중년 남자들의 심리적 저변에는 <불안감>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21 세기를 ‘스토리텔링 (Story Telling)의 시대’라고 한다. 내가 하는 이야기의 내용은 바로 ‘나 자신’이다. 생각도 이야기다. 생각은 내가 나 자신과 나누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러시아 문학 심리학자 비고츠키는 내 자신의 생각을 <내적 언어>라고 했다. 다양한 방식의 ‘기호’와 ‘상징’으로 매개된 <스토리텔링>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문화구성원리이다. 나 자신의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정치인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주변 사람들 이야기, 이 모두가 스토리에 굶주렸기 때문이다. 남의 이야기라도 하지 않으면 자신의 허전한 존재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골프나 낚시는 나의 이야기이다. 따라서 골프는 스토리텔링이지 운동이 아니라고 한다. 한국남자들이 술을 마시지 않고 4 시간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는 골프밖에 없다고 명지대 김정운 교수는 말한다. 여자 이야기도 이렇게 길게 하지 못한다. 4 시간 이상 수다를 떨고도 지치지 않으니 내일이면 또 골프장으로 기어나간다는 것이다. 이야기가 있는 삶은 행복하다. 이야기는 풍부하고 다양할수록 좋은 것이다. 남의 이야기는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더 늦기 전에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 내 피부로 느끼는 삶의 기쁨이나 슬픔에 관한 이야기, 내 가족과 친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조그만 즐거움이나 설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을수록 행복한 삶이다.

20 대 젊음의 시절에는 세월이 천천히 가다가 사,오십대가 되면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누구나 말한다. 그 근본적 이유는 <스토리보드 (Story Board)>다. 젊은 시절에는 삶의 이벤트가 많았다. 사랑하고 고민하고, 사색하고 좌절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졸업하고 입사하고, 매순간이 새로운 도전과 반응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40, 50 대는 쳇바퀴도는 반복되는 삶이다. 내 삶이 아니다. 이미 스토리보드가 짜여진 판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러기 위해 승진하고 출세하여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나를 잃어버린 삶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은퇴시점인 5,60 대 중년의 나이라면 지금이라도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내 스토리를 만들고 내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21 세기는 남의 이야기를

해서는 인기를 끌지 못한다. 글을 쓰는 인기작가도 결국 자기 영혼을 팔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쓴다. 목사님이나 스님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설교나 설법이 감동을 주지 못한다. 목사님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다. 연예인들도 은막의 시대는 끝났다.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야 하고 스토리텔링을 해야 한다. 가난과 역경을 이겨낸 스토리면 더 감동적이다. 그래서 TV 만 틀면 채널마다 리얼 버라이어티가 대세인 이유다. 현대인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Reality (현실성)과 Variety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21 세기를 사는 중년의 남자는 수다도 떨어야 하고 눈물도 흘려야 살 수 있다. <노오란 셔츠>입은 <말없는 그 남자>는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지금쯤 정신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중년의 수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6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되는가. 적어도 당신의 아내와 가족들이 감동할 스토리 이벤트는 몇가지나 되는가. 이제는 남의 험담이나 하는 한심한 중년남자로서의 수다가 아니라, 내 삶에 내 스스로가 감동을 주는 나만의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언젠가는 <영혼이 자유로운 남자>가 될 것이다..